



報 道 資 料

이 자료는 2006년 12월 6일(수)
조건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-세계은행 공동주최 「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전략」 국제회의 —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—

- 일 시: 2006년 12월 6일 09:00~18:00
- 장 소: KDI 대회의실
- 주 최: KDI · 세계은행
- 후 원: 기획예산처

- KDI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‘비전2030’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인 한국형 복지모델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국제회의를 개최함.
- 급속한 세계화와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미래의 불안요인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은 새로운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.
- 최근 발표된 ‘비전2030’은 이러한 미래의 도전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노력의 일환으로,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룩하는 동반성장의 패러다임이 핵심적 전략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.
- ‘비전2030’은 동반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,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동시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‘한국형 복지모델’을 수립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.
- 이에, KDI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‘한국형 복지모델’의 핵심적 부분인 사회안전망(Social Safety Net) 구축전략을 국제비교 연구를 통하여 모색함.

※ 문의 : 최경수 KDI 연구위원 016-***-****

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
TEL : 958-4030 FAX : 960-0652 E-mail : press@kdi.re.kr

[프로그램]

09:00~09:30 등록 및 네트워킹

09:30~09:40 환 영 사
김 준 경 국가개발연구원 부원장

제 1 세션 >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 설계: 정책 실행과 정부의 역할

09:40~10:10 "사회적 위험의 관리체계: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의 관점에서"
아제딘 오월기 [세계은행, 사회보호프로그램 리더]

10:10~10:40 "호주의 사회보장 체계: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"
데인 테일러 [호주 재무성]

10:40~11:00 휴 식

11:00~11:30 "사회안전망의 효과성을 위한 설계: 사회적 보호에서 생산적인 사회안전망까지"
아제딘 오월기 [세계은행, 사회보호프로그램 리더]

11:30~12:00 토 론
최 경 수 [한국개발연구원, 연구위원]
옌 윈 구 [대만 국립 치난대학교 교수]

12:00~13:30 점 심

제 2 세션 > 아시아 지역의 정책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- 국가적 환경과 최근의 개혁

13:30~14:10 "퇴직을 대비한 강제저축의 가능성과 한계 :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한 교훈"
미스라 라메쉬 [싱가포르 대학교 교수]

14:10~14:50 "한국 복지정책의 전략 변화: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모든 계층을 위한 보호로"
김 상 균 [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]

14:50~15:10 휴 식

15:10~15:50 "누구의 책임인가? 신빈곤과 대만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함의"
옌 윈 구 [대만 국립 치난대학교 교수]

15:50~16:30 "태국의 사회안전망: 미래의 도전과제"
타윌와디 뷰레쿨 [태국 왕립 뿌라차티벡 연구소 소장]

16:30~16:50 휴 식

제 3 세션 > 토 론

16:50~18:00 앞으로 나아갈 방향: 사회안전망 정책경험 교훈과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체제수립 방안

▪ 사 회: 미스라 라메쉬 [싱가포르 대학교 교수]

▪ 토 론:

유 정 [중화민국 재정부 사회안보부 부국장]

이 외 태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

#첨부. 주제발표 요약

[주제발표 1]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설계: 정책실행과 정부의 역할

아제딘 오월기(세계은행, 사회 프로그램 리더)

-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수준은 유럽국가는 GDP 3% 내외, 미국은 GDP 2.2%* 수준(* Medicaid 지출 제외)
 - 용어 상 사회보호정책은 미국에서는 복지정책(welfare policy), 유럽에서는 공공부조(social assistance),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안전망(social safety net)으로 통칭
- 각국은 사회안전망 지출 구조는 서로 매우 이질적
 - 미국, 영국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는 연금, 건강보험,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약하며 빈곤계층에 집중된 사회적 보호를 시행
 -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며 사회적 보호는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체제
 - 잔여적 복지는 가족정책과 자산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
 - 영어권 국가들에서 사회보호 부문 지출은 보다 규모가 크지만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보호의 범위는 유럽국가들에서 더 높은 편
- 이러한 사회복지체제를 결정하는 요인은 불평등도, 조세체제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보다 정치제도, 인종의 구성, 빈곤에 대한 전통적 견해 등 정치적인 요인의 비중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.
- 사회복지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음.
 - 사회복지모델 구성 요소: ① 최저소득보장, ② 주거지원, ③ 아동지원, ④ 모·부자 가정 보호, ⑤ 근로능력자를 위한 근로조건부 지원, ⑦ 보육지원
- 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였으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발생
 -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 위험: ① 고령, ② 단기적 실업, ③ 장애, ④ 빈곤
 - 새로운 의미의 사회적 위험: ① 장기실업 특히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인한 위험, ② 인

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 확대, ③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모·부자 가정, 단독가정의 빈곤,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구조

□ 복지체제의 새로운 과제는 (1) 복지의존성 방지와 (2) 신빈곤 및 사회적배제 예방을 위한 복지개혁으로 요약되고 있음.

- 복지의존성을 방지하고 근로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장기적인 복지급여수혜 예방, ② 부정수급의 방지, ③ 구직노력 부과, ④ 급여수준 조정, 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역할 분담, ⑦ 교육·훈련기회의 확대가 요청됨.
-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인하여 취업기회를 상실하는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배제 (social exclusion)와 신빈곤(new poverty) 문제는 과거의 '빈곤'보다 오히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: ① 절대적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빈곤으로부터의 보호, ② 단순한 생활보호지원에 의한 복지의존층 양산 지양

[주제발표 2] 호주의 사회안전망 체제: 지속가능한 효과적인 안전망

데인 테일러 (호주, 재무성)

- 호주의 사회안전망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의존도는 낮으며, 사회보호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.
 - 호주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소득보장이 아니라 국민생활에서 당면하는 '사회적 위험'으로부터의 보호임.
- 호주의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, 보호수준이 적절하고,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,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특징
- 호주의 사회안전망은 자산검증(means-test)을 엄격히 실시하며 일정액의 급여만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음.
- 호주의 사회보호의 재원은 일반재정으로부터 조달되므로(공공부조제도), 보호수준이 적절하고, 지출구조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가능하며,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며, 신속한 개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.
 - 인구구조 고령화에 의하여 초래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불안과 경제·사회적 변화에 대한 도전요인에 대하여 유연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

[주제발표 3] 한국복지체제의 변화: 근로복지로부터 국민생활보장으로

김 상 균 (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)

-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2000년 이전에는 근로자 복지에 국한
 - 복지제도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 재정부담 축소
 - 사회보험 형태는 무기여자는 자동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을 합리화

□ 1999년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정으로 국가복지 전략은 중대한 전환

- 이러한 국가복지 전략의 전환은 참여복지의 시행과 더불어 가속화
- 가족정책과 사회적 보호의 확대, 보육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기여금 원칙에 입각한 과거의 복지원칙이 수정되고 있음을 증명

□ 그러나 한국의 복지전략은 자신의 고유한 복지국가모델을 수립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획득하여한다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

[주제발표 4] 싱가포르의 사회안전망

미쉬라 라메쉬 (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)

□ 싱가포르는 여전히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체제는 매우 미약한 형편

- 정부는 복지정책을 여전히 거부하는 입장에 있으며 빈곤대책은 매우 미약
 -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수혜대상이 인구대비 0.1%에 지나지 않으며 액수도 절대빈곤선에도 미달하는 수준

※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대비 3%가 정책 대상

□ 그러나 싱가포르 역시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으며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

- 일부 정부 각료들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을 공개적으로 언급
-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

[주제발표 5] 신빈곤과 대만의 사회안전망 구축

엔 웬 구 (대만 국립 치난 대학교 교수)

- 대만의 사회복지제도는 1990년대 민주화로 인한 정당간의 정치적 지지획득 경쟁 과정에서 발전하였으며 최근 세계화 가속으로 신빈곤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
 - 1990년대 시행된 국민의료보험, 실업수당, 노인수당, 아동과 여성 보호, 도입예정인 국민연금보험으로 사회복지제도 형성
 - 1990년대의 대만의 복지시스템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KMT와 DPP 두 정당의 치열한 국민 지지획득 경쟁과정에서 발전
 - 2000년 DPP의 선거승리로 권위주의적 정권이 퇴조하고, 동시에 세계화로 인한 국제경쟁 가열으로 신빈곤문제(new poverty)와 같은 사회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복지 정책은 확대
- 경제관료들은 세계화를 지지하며 세금감면, 민영화, 규제완화 등과 같이 정부개입을 축소하는 정책이 대만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함.
- 반면, 실업 증가와 이에 따른 신빈곤문제의 심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대책을 요구하는 상황

[주제발표 6] 태국의 사회 안전망: 미래의 도전과제

타일와디 부레쿨 (태국 왕립 뿌라차티벡 연구소 소장)

- 태국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1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
 - 대부분의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는 1997년 헌법 개정 이후에 도입
 - 건강보험, 교육개혁, 공무원 연금, 사회보장 등
- 이러한 정책 실행이후 만족스럽고 의미있는 성공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정책성공의 지속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존재하는 상태
- 현재의 태국 정부는 사회보장 강화를 목표로 사회정책을 형성하고 태국사회비전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.